

제 1 교시

국어 영역

홀수형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화창한 날, 또는 싱그러운 밤에, 벌레 기어가듯 한없이 늘어서 있는 활자들을 헤아려 나가는 일처럼 지겨운 것이 있겠는가. 밀어내듯 글자 한자한자, 단어 하나하나 눌러 가며 몇 줄 지나다 보면 머릿속은 어디 엉뚱한 데에 가 있기 십상이다. 나의 책 안 읽음을 나는 아마 과장했을지도 모르겠다. 최소한의 체면으로 책을 보기가 하겠지만, 전날처럼 진지하고 성실하게 책 읽는 태도는 벗어난 것이 사실이다. 책이 삶을 뛰어넘게도 하며 참된 삶을 열어 주기도 하고 현실을 바로 보게 만드는 것도 진실이겠지만, 그렇다고 모든 책이 그럴 리가 없으며, 책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 될 리도 없다. 아무리 양보해도, 책은 곧 삶도 아니고 또한 현실과 등식화되는 것도 아니며 책이 곧 세계의 실재일 리도 없다.

책이란 잘해 보았자 삶의 또 하나의 작은 경험이며, 현실을 바라보는 눈을 길러 주며 세계를 그럴듯하게 베껴 줄 뿐이다. 책을 제대로 읽는다는 것은 정말 사랑하는 연인을 대하는 것처럼, 다가서며 의혹을 두고, 도망가다가도 미련으로 돌아서고, 껴안으면 서도 그의 배신 가능성을 결코 지워 버리지 않는 데서 얻어지는 것이다. 다독이니 정독이니, 밑줄치기니 메모하기니 머리 아픈 모범적 독서 교훈을 내팽개치고 나처럼 편하게, 책 읽는 괴로움으로부터 자유로운 태도에 대한 옹호론이 이렇게 해서 생겨난 것이다.

이 독서법의 한 가지는 아무 책의 아무 곳을 펼쳐 보다가, 아무 때 어디서나 덮고 싶은 대로 덮는 것이다. 나는 잠이 안 올 때면 책을 집어 들어 아무 곳이나 읽다 말다 하며 졸음이 오면 잠을 자곤 했다. 이때 읽은 것이 “열국지” 등이었는데, 잠결에 읽은 탓으로 중요한 구절을 곧 잊어버리는 단점은 있지만 책에 대한 억압감 없이, 시간도 부담 없이 보낼 수가 있는 가장 편한 독서법이였다. 이 방법보다 좀 더 체계적이기는 하지만 마찬가지로 자유로울 수 있는 독서법은 책의 페이지마다 몇 개의 단어만 헤아리며 빠르게 넘기는 일이다.

이것과는 정반대의, 아껴 읽는 방법을 나는 혼하지는 않지만 아껴서 사용한다. 일부러 책을 찬찬히, 마치 귀한 사탕 과자를 닮는 것이 아까워 아주 조금씩 빨듯이 그렇게 한 줄 한 줄을, 느장부리며 읽어 가는 것이다. 나는 이 같은 책 읽기가 얼마나 감미로운 것인지를 군대에서 체험했다. 김은국 씨의 “순교자”영문판이 막 국내에서 발간되었을 때, 그것을 사들고 귀대하였다. 그 책은 신학적 스타일이 넘치고 너무 재미가 있어서 정말 후딱 읽어 버리기에는 너무 아까웠다. 그래서 나는 느릿느릿 읽었다. 이 재미에 빠져 영문판으로 번역된 도스토예프스키의 “악령”과 “백치” 등을 읽었다. 이 책들을 내 나름의 방법으로 즐길 수 있었던 것은 군대 시절 경험에서 얻은 지독법(遲讀法) 덕분이다. 기능적인 시대에 이러한 독서법은 비능률적이고 더구나 천천히 읽는 사이에 끼어드는 분방한 상념 때문에 책과 관련 없는 내용으로 기억

을 혼란스럽게 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정확한 이해보다 절실한 감정이 더욱 아름다운 지혜가 될 수도 있다.

1. 윗글에 나타난 글쓴이의 독서에 대한 생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책은 빠른 속도로 많이 읽도록 해야 한다.
- ② 많은 책을 정독법으로 꼼꼼하게 읽어야 한다.
- ③ 모든 책 속에 나타난 저자의 권위를 존중해야 한다.
- ④ 책에 나타난 삶의 실재를 체계적으로 경험해야 한다.
- ⑤ 특정한 독서법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방법으로 자유롭게 읽어야 한다.

2.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모범적 독서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고르면? [3점]

< 보 기 >

a. 몇 개의 단어만을 골라서 연상하며 읽는다.
 b. 어려운 책을 읽을 때에는 중요한 내용에 밑줄을 치거나 핵심 내용을 요약하며 읽는다.
 c. 책의 순서를 따라서 읽기보다는 읽고 싶은 곳만을 골라서 읽는다.
 d. 삶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얻기 위해서 최대한 많은 책을 읽는다.

- ① a, b ② a, c ③ a, d ④ b, c ⑤ b, d

3. 독서를 대하는 태도가 윗글의 글쓴이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책 읽기를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고자 한다.
- ② 편안한 마음으로 편안한 시간에 읽고 싶은 책을 읽는다.
- ③ 교훈을 얻기보다 책을 읽는 행위 자체를 즐기며 읽는다.
- ④ 다른 사람과는 다른 자기만의 책 읽기 방법으로 읽는다.
- ⑤ 재미있는 내용은 한 번에 읽지 않고 조금씩 아껴 읽는다.

[4~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최근 휴대 전화의 문자 메시지가 자동으로 점자로 변환되어 시각 장애인도 쉽게 문자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게 돕는 장치가 개발되었다. 문자 메시지의 글자 각각을 여섯 개의 점으로 이루어진 점자의 전기 신호로 변환한 후, ㉠이 전기 신호를 이용해 점자의 불룩한 부분이 번갈아 돌출되게 만든 장치인데, 이 장치는 컴퓨터 자판의 키 하나 크기의 모터로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어떤 기술을 활용했기에 작은 크기의 모터로 점자를 정확하게 구현해 낼 수 있었을까? 그 답은 바로 쌍극자를 이용한 압전 모터에서 찾을 수 있다.

결정 구조*를 가진 물질 중에는 분자 구조상 쌍극자를 가진 것이 있다. 쌍극자는 부호는 반대이고 크기가 같은 두 전하의 분포를 말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중성을 띠지만 각 전하의 위치가 흩어져 있는 원자나 분자에서 나타날 수 있어 물질의 전기적인 성질을 결정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예컨대 물 분자 H₂O는 대표적인 쌍극자이다. 물 분자 안에서 음전하를 가진 전자들은 수소 쪽보다는 산소 쪽에 더 가깝게 있으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 때문에 물 분자의 산소 쪽과 수소 쪽이 서로 반대의 전기적 성질을 띠며 쌍극자가 된다.

쌍극자를 가진 물질을 압전체라고 하는데, 이 압전체에 외력을 주거나 전기를 흘려 주면 결정을 구성하는 분자 간 혹은 이온 간 상태 변화가 발생하며 압전 효과가 일어난다. 압전 효과가 일어나는 원리를 이해하려면 압전체의 구조를 알아야 한다. 석영, 전기석, 세라믹 같은 압전체에서는 특정 방향으로 한쪽이 양 극성을, 반대쪽이 음 극성을 띠는 분극 현상이 일어난다. 분극 현상이 일어나 있는 압전체를 위아래로 당겨서 늘이면 결정 구조가 깨지면서 압전체의 위와 아래 사이에 전위차가 생기게 되고, 전자가 양극에서 음극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때 압전체에 연결된 전기 회로에 음극에서 양극으로 전류가 흐르게 된다. 이와 반대로 분극 현상이 일어나 있는 압전체를 눌러 찌그러뜨리면 위아래로 당겨서 늘였을 때의 역방향으로 전자가 이동하며 전류가 흐르게 된다. 이처럼 압전체에 외력을 주면 전류가 흐르는 현상을 1차 압전 효과라 한다.

한편 압전체에 전기를 흘려 주면 압력을 받거나 진동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2차 압전 효과라고 한다. 압전 효과는 음전기를 띠는 쪽의 전하들은 양극으로 따라가고 양전기를 띠는 쪽의 전하들은 음극으로 따라가는 것, 음전기를 띠는 쪽의 전하들은 음극과 멀어지고 양전기를 띠는 쪽의 전하들은 양극에서 멀어지는 것과 관련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압전체는 압력을 받아 길이가 늘어나거나 줄어들게 된다. 즉 압전체에서 전원을 음전기를 띠는 쪽에 양극을 연결하고 양전기를 띠는 쪽에 음극을 연결하면 인력에 의해 압전체의 길이가 늘어나는 현상이 일어나는 반면, 전원을 음전기를 띠는 쪽에 음극을 연결하고 양전기를 띠는 쪽에 양극을 연결하면 척력에 의해 ㉡압전체의 길이가 줄어드는 현상이 일어난다.

압전 효과를 이용하는 대표적인 장치로는 압전 모터를 들 수 있다. 휴대 전화 카메라에서 초점을 자동으로 ㉢맞추어 주는 ㉣오토 포커싱 장치가 그 예이다. 휴대 전화 카메라에서 초점을 맞추려면 렌즈를 빠르고 미세하게 움직여야 하는데 압전 모

터가 이러한 기능을 한다. 휴대 전화카메라에는 길이가 3m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선형의 압전 모터가 장착되어 있는데, 이 모터에 있는 압전체들은 교류 전기가 흐를 때 1초에 수천 번씩 미세하게 진동하며 렌즈가 걸려 있는 이동축을 흔들게 된다. 이 흔들림이 심해질수록 렌즈는 이동축을 따라 움직이며 압전체로부터 떨어진다. 예를 들어 압전체에 흐르는 교류 전류의 세기와 주기를 조절하여 압전 모터를 처음에는 느리게, 나중에는 빠르게 진동시키면 관성에 따라 렌즈는 압전체로부터 떨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며 초점에 맞는 렌즈의 적절한 위치를 찾게 된다.

앞서 언급한 시각 장애인이 쉽게 문자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게 돕는 장치 역시 압전 모터가 활용된 것이다. 압전 모터는 압전체에 교류 전기를 흘려 줄 때 압전체가 계속 떠는 진동을 이용해 압전체 위에 놓인 물체가 원형으로 회전하거나 직선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반응 속도가 빠르고 기어 없이 진동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컴퓨터 자판의 키 하나의 크기로 작게 제작할 수 있으며 일반 모터와 달리 미끄러지지 않고 나노미터 규모로 정밀하게 움직일 수 있어 더욱 상용화될 전망이다.

* 결정 구조: 원자, 이온, 분자 따위가 규칙적으로 일정한 법칙에 따라 배열되어 있는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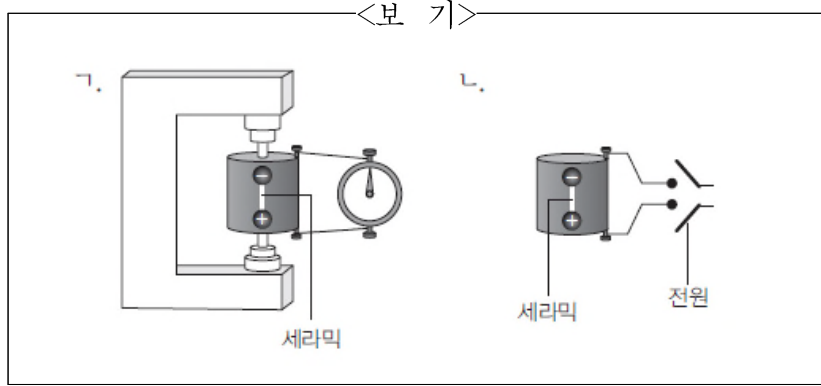
4.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쌍극자는 결정 구조를 가진 물질의 전기적인 성질을 결정하는 데에 관여한다.
- ② 물 분자 H₂O의 경우 산소 쪽은 음전하, 수소 쪽은 양전하를 띠는 쌍극자이다.
- ③ 압전 모터는 기어를 이용하여 물체를 회전 운동이나 직선 운동을 하게 만드는 장치이다.
- ④ 일반 모터와 달리 압전 모터를 이용하면 나노미터 규모로 움직임을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다.
- ⑤ 석영이나 전기석은 모두 특정 방향으로 한쪽이 양 극성을, 반대쪽이 음 극성을 띠는 물질이다.

5. ㉠에서 활용된 ‘압전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1차 압전 효과만 활용된다.
- ② 2차 압전 효과만 활용된다.
- ③ 1차 압전 효과와 2차 압전 효과가 동시에 활용된다.
- ④ 1차 압전 효과가 활용되다가 2차 압전 효과가 활용된다.
- ⑤ 2차 압전 효과가 활용되다가 1차 압전 효과가 활용된다.

6. <보기>를 통해 '압전 효과'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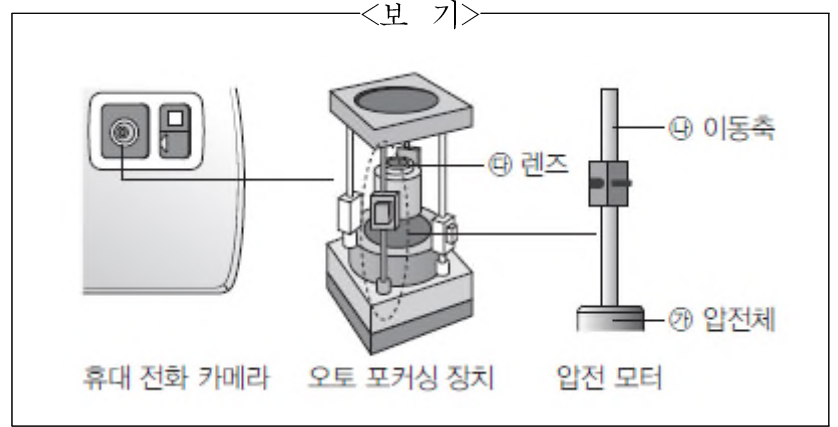


- ① 가, 나.의 세라믹에서 위쪽과 아래쪽의 극성이 상반되는 것으로 보아 분극 현상이 일어나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가에서 외력을 가해 세라믹을 위아래로 당기면 세라믹의 위아래에 전위차가 발생하여 양극에 있던 전자가 음극으로 이동하게 된다.
- ③ 가에서 외력을 가해 세라믹을 눌러 찌그러뜨리면 전류가 음극에서 양극으로 흐르게 된다.
- ④ 나에서 쌍극자의 양극은 전원의 양극에, 쌍극자의 음극은 전원의 음극에 연결하면 2차 압전 효과가 일어난다.
- ⑤ 나에서 세라믹의 길이가 늘어나게 하려면 쌍극자의 음극을 전원의 양극에, 쌍극자의 양극을 전원의 음극에 연결하면 된다.

7.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양전기를 띠는 쪽과 음전기를 띠는 쪽의 전하들이 모두 양극으로 따라가기 때문이다.
- ② 양전기를 띠는 쪽과 음전기를 띠는 쪽의 전하들이 모두 음극으로 따라가기 때문이다.
- ③ 양전기를 띠는 쪽의 전하는 양극에서 멀어지고, 음전기를 띠는 쪽의 전하는 음극에서 멀어지기 때문이다.
- ④ 양전기를 띠는 쪽의 전하는 양극에서 멀어지는 반면, 음전기를 띠는 쪽의 전하는 음극으로 따라가기 때문이다.
- ⑤ 양전기를 띠는 쪽의 전하는 양극으로 따라가는 반면, 음전기를 띠는 쪽의 전하는 음극에서 멀어지기 때문이다.

8. ㉡을 <보기>와 같이 나타냈을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에 교류 전류를 흘려 주다가 끊으면 ㉠은 ㉡에 가까워진다.
- ② ㉡에 교류 전류가 흐르면 2차 압전 효과에 의해 ㉠이 진동하게 된다.
- ③ ㉡에 흘려 주는 교류 전류의 세기와 주기에 따라 ㉠의 위치는 달라진다.
- ④ ㉡이 ㉡에서 멀어지며 초점에 맞는 적절한 위치를 찾는 것은 관성과 관련된다.
- ⑤ ㉠은 ㉡를 고정시키며 ㉡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와 주기를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9. ㉢와 바꾸어 쓸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조정(調整)해
- ② 조성(造成)해
- ③ 조율(調律)해
- ④ 조종(操縱)해
- ⑤ 조치(措置)해

[10~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아리스토텔레스는 설득력 있게 자신의 주장을 논증하는 수단으로 논리학을 주장했다. 그는 문장의 주어와 술어의 관계에 주목하여 다음과 같은 논증 형식이 타당하다는 것을 파악했다.

	(가)	(나)
대전제	모든 동물은 생물이다.	모든 여자는 남자가 아니다.
소전제	모든 뱀은 동물이다.	모든 소년은 남자이다.
결론	그러므로 모든 뱀은 생물이다.	그러므로 어떤 소년도 여자가 아니다.

(가)의 세 문장들은 각각 어떤 집합에 어떤 것이 포함되는지 아닌지를 나타내는 정언 명제로 표현되어 있다. 여기서

[18~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A] 거미 새끼 하나 방바닥에 나린 것을 나는 아무 생각 없 이 문 밖으로 쓸어버린다
 차디찬 밤이다

[B] 어니젠가 새끼 거미 쓸려나간 곳에 큰 거미가 왔다
 나는 가슴이 짜릿한다
 나는 또 큰 거미를 쓸어 문 밖으로 버리며
 찬 밖이라도 새끼 있는 데로 가라고 하며 서러워한다

[C] 이렇게 해서 아린 가슴이 싹기도 전이다.
 어데서 좁쌀알만한 알에서 가재 깨인 듯한 발이 채 서지 도 못한 무척 작은 새끼 거미가 이번엔 큰 거미 없어진 곳 으로 와서 아물거린다
 나는 가슴이 메이는 듯하다
 내 손에 오르기라도 하라고 나는 손을 내어미나 분명히 ㉠울고 불고 할 이 작은 것은 나를 무서우이 달아나버리며 나를 서럽게 한다
 나는 이 작은 것을 고이 보드러운 종이에 받아 또 문 밖 으로 버리며
 이것의 엄마와 누나나 형이 가까이 이것의 걱정을 하며 있다가 쉬이 만나거나 했으면 좋으련만 하고 ㉡슬퍼한다
 - 백석, 「수라(修羅)」 -

(나)
 사시사철 엉경퀴처럼 푸르죽죽하던 옥레 엄마는 곡(哭)을 팔고 다니던 곡비(哭婢)였다

이 세상 가장 슬픈 사람들의 울음
천지가 진동하게 대신 울어주고
 그네 울음에 꺼져버린 땅 밑으로
㉢떨어지는 무수한 별똥 주워 먹고살았다
 그네의 허기 위로 쏟아지는 별똥 주워 먹으며
 까무러칠 듯 울어대는 곡(哭)소리에
이승에는 눈 못 감고 떠도는 죽음 하나도 없었다
저승으로 갈 사람 편히 떠나고
 남은 이들만 잠시 서성일 뿐이었다

가장 아프고 가장 요염하게 울음 우는
 옥레 엄마 머리 위에
 하늘은 구멍마다 별똥 매달아 놓았다

그네의 울음은 언제 그칠 것인가
 ㉣엉경퀴 같은 옥레야, 우리 시인의 딸아
 ㉤너도 어서 전문적으로 우는 법 깨쳐야 하리

이 세상 사람들의 울음

까무러치게 대신 우는 법
 알아야 하리
 - 문정희, 「곡비(哭婢)」 -

(다)
 말에 내려 인가를 찾아가 보니 下馬問人居
 아낙네 문간에 나와 맞이하네 婦女出門看
 띠집 처마 아래 손을 얹게 하고 坐客茅屋下
 나를 위해 밥과 반찬 내어 오네 爲客具飯餐
 남편은 어디에 나가 있냐 하니 丈夫亦何在
 아침에 따비*를 메고 산에 올라 扶犁朝上山
 산밭을 일구느라 고생을 하며 山田苦難耕
 저물도록 돌아오지 못한다네 日晚猶未還
 사방을 둘러봐도 이웃은 없고 四顧絕無隣
 개와 닭도 산기슭에 의지해 사네 鷄犬依層巒
 숲 속에는 사나운 호랑이 많아 中林多猛虎
 나물도 마음대로 못 뜯는다네 采藿不盈盤
 ㉠슬프다 ㉡외판 살이 어찌 좋으리 哀此獨何好
 험하고 험한 산골짜에서…… 崎嶇山谷間
 평지에 살면 더없이 좋으련만 樂哉彼平土
 가고 싶어도 벼슬아치 두렵다네 欲往畏縣官
 - 김창협, 「산민(山民)」 -

* 따비 : 풀뿌리를 뽑거나 밭을 가는 데 쓰는 농기구.

18.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상의 반전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 ② 화자가 관찰자의 입장에서 갖게 된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③ 자연에서 얻은 깨달음을 통해 화자의 태도가 변화하고 있다.
 - ④ 서로 다른 두 대상의 차이점에 주목하여 주제를 이끌어 내고 있다.
 - ⑤ 화자 자신에 대한 성찰을 통해 바람직한 삶의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19. (가)의 [A]~[C]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와 달리 [B], [C]에서는 화자의 정서가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다.
 - ② [A], [B]와 달리, [C]에서는 대상에 대한 세밀한 묘사가 나타나 있다.
 - ③ [A], [B], [C]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자연스럽게 전개하고 있다.
 - ④ [A] → [B] → [C]로 시상이 전개되면서 공간적 배경이 점차 축소되고 있다.
 - ⑤ [A], [B], [C]에서 동일하게 반복된 화자의 행위 중 [A]에 담긴 행위의 의도는 나머지 둘과 다르다.

20.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사람들은 정상적인 죽음을 맞이한 인간의 혼이 초상, 소장, 대상을 지내는 3년 동안 그 한을 위로받고 양의 기운을 가진 신이 되어 하늘로 올라간다고 보았다. 하지만 그 죽음이 비정상적이거나 억울한 경우 또는 그 한을 제대로 위로받지 못한 경우에 그 영혼은 음의 기운을 띤 귀가 되어 중간 세계를 계속 배회하면서 사람을 해하는 원귀가 된다고 보았다. 결국 곡비는 이렇게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을 위로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대신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 ① ‘천지가 진동하게 대신 울어주고’는 옥례 엄마가 곡을 할 때 망자보다 더 억울한 자신의 처지를 떠올리며 과장된 슬픔을 보인다는 의미이겠군.
- ② ‘이승에는 눈 못 감고 떠도는 죽음’은 한 때문에 이승과 저승의 중간 세계를 떠도는 영혼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③ ‘저승으로 갈 사람 편히 떠나고’는 곡비의 울음을 통해 억울하게 죽은 영혼이 한을 위로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겠군.
- ④ ‘그네의 울음은 언제 그칠 것인가’는 한스러운 삶이 이어지는 이 세상에서 ‘곡비’의 역할은 그치기 어렵다는 것이겠군.
- ⑤ 곡비를 ‘시인’이라고 한 것은 ‘시인’도 아픈 사람들을 대신 해 울어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기 때문이겠군.

21. 성장하여 시인이 된 (나)의 ‘옥례’가 (다)의 ‘아낙네’를 대신하여 울어준다고 가정할 때, 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이고 아이고, 이제는 더 이상 못 살겠네.
 ① 평지에 살 수 없어 산 속으로 도망쳐 왔지만 살림살이 나아질 기색 없고 사는 것 힘겹다네.
 아이고 아이고, 한스럽고 한스럽다.
 ② 우리네 못살게 구는 벼슬아치 두려워 평지로 돌아갈 수도 없는 신세
 이 가슴에 맺힌 한을 어이하면 다 씻으리.
 아이고 아이고, 속이 타고 애가 탄다.
 ③ 벼슬아치 피해 떠난 남편 저물도록 소식 없네.
 나물이라도 뜯어야 먹고 살 수 있으련만
 ④ 숲 속에는 호랑이가 많으니 그것도 쉽지 않네.
 아이고 아이고, 억울하고 억울하다.
 ⑤ 이웃 하나 없이 사는 이 내 신세
 쓸쓸하고 외로워서 눈물만 앞을 가리네.
 아이고 아이고, 이제는 더 이상 못 살겠네.

22.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은 남보다 자신을 위한 것이다.
- ② ㉠과 ㉡은 외적인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다.
- ③ ㉠과 ㉡은 무기력한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을 담고 있다.
- ④ ㉡과 달리 ㉠에는 현실 상황에 대한 비판 의식이 드러나 있다.
- ⑤ ㉠과 달리 ㉡에는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그리움이 나타나 있다.

23.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작은 새끼 거미’에 감정을 이입하여 화자의 애상감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② ㉡ : ‘옥례 엄마’의 곡(哭)이 생계와 관련되어 있음을 ‘주워 먹고 살았다’라는 표현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 ③ ㉢ : 옥례를 엉덩이에 비유하여 ‘옥례’와 ‘옥례 엄마’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하고 있다.
- ④ ㉣ : 연을 마무리하는 종결 어미에 변화를 주어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 ⑤ ㉤ : 비참한 현실 상황을 부각하기 위해 설의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24~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출장을 마치고 하루 일찍 돌아온 그는 아내가 부재함을 알고 고독감을 느낀다. 그때 들려오는 소란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데, 갑자기 방 안의 모든 것들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는 어둠 속에서 눈을 부릅뜬다. 벽이 출렁거린다. 그는 천천히 몸을 움직인다. 방 벽면 전기다리미 꽂는 소켓의 두 구멍 사이에서 소리가 들려온다. 친구여, 귀를 좀 대 봐요. 내 비밀을 들려줄게. ㉠ 그는 그의 오른쪽 귀를 소켓에 밀착한다. 그의 귀가 전기 금속 부품처럼 소켓의 좁은 구멍에 접촉된다. 그러자 그의 온몸이 고급 전기난로처럼 달아오르기 시작한다. 그의 몸에 스파크가 일고, 그는 온몸에 충만한 빛을 느낀다.

잘 들어요. 소켓이 속삭인다. 마치 트랜지스터의 이어폰을 꽂은 것처럼 그의 목소리는 귓가에만 사근거린다. 오늘 밤 중대한 쿠데타가 있을 거예요. 겁나지 않으세요.

그는 소켓에서 귀를 떼다. 그리고 맹렬한 기세로 다시 스위치를 올린다. 불이 들어오면 이 모든 술렁임이 도료처럼 벽면에 밀착하고 모든 것은 치사하게도 시치미를 떼고 있다. 그는 불을 켜 채 화장대로 다가간다. 그는 투덜거리면서 키가 크고 낮은 모든 화장품을 열어 검사한다. 그리고 찬장을 열어 그 안에 가지런히 놓인 빈 그릇들, 성냥통, 촛대, 옷장을 열어 말리

는 바다 생선처럼 걸린 옷들, 그리고 그들의 주머니도 검사한다. 옷들은 좀 패싹했지만 얇전하게 주머니를 털어 보인다. 그는 하나하나 보리라고 다짐한다. 서랍을 뒤져 남은 물건도 조사한다. 그러다가 이미 건조하여 건드리기만 해도 부서질 듯한 낙엽 몇 장을 발견했다. 그것은 그에게 지난가을을 생각나게 했고 그는 잠시 우울해졌다. 그는 사진들 속의 퇴색한 사진도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책상에 꽂힌 뚜껑 씌운 책들도 관찰하였다. 그는 부엌으로 가서 석유풍로의 심지도 관찰하고, 낡은 구두 속도 들여다보았다. 다락문을 열어 갖가지 물건도 하나하나 세밀히 보았고 욕실에서 그는 욕조 밑바닥까지 관찰하였다. 덮개가 있는 것은 그 내용물을 검사하였으며 침대도 들어서 털어도 보았다. 심지어 변기도 들여다보았고, 창틈 사이도 들여다보았다. 물건들은 잘 참고 세금 잘 무는 국민처럼 얇전하게 그의 요구에 응해 주었다. 그러나 그가 들여다보는 물건은 본래 예사의 물건은 아니었다. ㉠그것은 이미 어제의 물건이 아니었다.

그는 한층 더 깊은 피로를 느끼면서 거실로 돌아와 술병의 술을 잔에 가득히 부어 단숨에 들이마셨다. 그러자 그는 아주 쓸쓸하고 허무맹랑한 고독감을 느꼈다. 그래서 그는 다시 한 잔을 가득히 부어 연거푸 단숨에 들이마셨다. 술맛은 짜고 싱겁고, 달고도 썼다.

그는 어디쯤엔가 피다 남은 꿈초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서랍을 뒤지다가 말라빠진 담배꿈초를 발견했다. 그는 그것에 불을 붙였다. 술기운이 그를 달아오르게 하고 그를 격려했기 때문에 그는 아둥처럼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나뭇잎에 놀던 새여. 왜 그런지 알 수 없네.
넌들 그대를 어찌 아리. 내가 싫으면 떠나가야지.

그는 벌거벗은 채 온 방 안을 서성거리기 시작했다. 그는 그것이 일상사인 것처럼 걷고, 그리고 뛰었다. 그는 부엌을 답사하였고 그럴 때엔 욕실 쪽이 의심스러웠다. 욕실 쪽을 보고 있노라면 그는 거실 쪽이 의심스러웠다. 그는 활차(滑車)처럼 뛰고 또 뛰었다.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아무런 낚시도 발견해 낼 수 없었다. 무생물에 놀란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그러자 그는 비로소 안심이 되었다. 그래서 ㉡거만스럽게 걸어가서 스위치를 내렸다. 그는 소파에 앉아 남은 설탕물을 짚금짚금 들이켜기 시작했다. 그가 스위치를 내리자, 벽에 도료처럼 붙었던 어둠이 차곡차곡 잠겨서 덤벼들고 그들은 이윽고 조심스럽게 수군거리더니 마침내 배짱 좋게 깔깔거리고 있었다. 말린 휴지 조각이 배포처럼 늘어져 허공을 난다. 닫힌 서랍 속에서 내의가 펄펄 뛰고 있다. 책상을 받친 네 개의 다리가 흔들거리기 시작한다. 찬장 속에서 그릇들이 어깨를 이고 달그락거리며 쟁그렁거리면서 모반을 시작한다.

그것은 그래도 처음엔 조심스럽게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들의 대상이 무방비인 것을 알자, 일제히 한꺼번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날뛰기 시작했다. 크레용들이 허공을 난다. 옷장 속의 옷들이 펄럭이면서 춤을 춘다. 혁대가 물뱀처럼 꿈틀거리다. 용감한 녀석들은 감히 다가와 그의 얼굴을 슬쩍슬쩍 건드려 보기도 하였다. 조심해, 조심해. 성냥갑속에서 성냥개비가

중얼거리다. 꽃병에 꽂힌 마른 꽃송이가 다리를 번쩍번쩍 들어 올리면서 춤을 춘다. 내의가 들여다보인다. 벽이 서서히 다가와서 눈을 두어 번 꿈쩍거리다가는 천천히 물러서곤 하였다. 트랜지스터가 안테나를 세우고 도립하기 시작한다. 그러자 재떨이가 박수를 치기 시작한다. 소켓 부분에선 노래가 흘러나온다. 낙숫물이 신기해서 신을 받쳐 들던 어릴 때의 기억처럼 그는 자그마한 우산을 펴고 화환처럼 황홀한 그의 우주 속으로 뛰어든 셈이었다. ㉢그는 공범자가 되고 싶은 욕망을 느낀다.

그때였다. 그는 서서히 다리 부분이 경직해 오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우연히 느낀 것이었다. 처음에 그는 이 방에서 도망가리라 생각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소리를 내지 않고 살금살금 움직이리라고 마음먹고 천천히 몸을 움직이려 했을 때였다. 그러나 그는 다리를 움직일 수가 없었다. 이상한 일이었다. 그래서 그는 손을 내려 다리를 만져 보았는데 다리는 이미 굳어 석고처럼 딱딱하고 감촉이 없었으므로 별수 없이 손에 힘을 주어 기어서라도 스위치 있는 쪽으로 가리라고 결심했다. 그는 손을 뻗쳐 무거워진 다리, 그리고 더욱더 굳어져 오는 다리를 끌고 스위치 있는 곳까지 가려고 안간힘을 썼다. 그러나 그는 채 못 미처이미 온몸이 굳어 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래서 그는 숫제 체념해 버렸다. 참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는 조용히 다리를 모으고 직립하였다. 그는 마치 부활하는 것처럼 보였다.

다음다음 날 오후쯤 한 여인이 이 방에 들어왔다. 그녀는 방 안에 누군가가 침입한 흔적을 발견했다. 매우 놀라서 경찰을 부를까고도 생각했지만, 놀란 가슴을 누르며 온 방 안을 조심스럽게 살펴보았는데 틀림없이 그녀가 없는 세에 누군가가 들어온 것은 사실이긴 했지만 자세히 구석구석 살펴본 후에 잃어버린 것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자 안심해 버렸다.

그러나 그녀는 곧 잃어버린 것이 없는 대신 새로운 물건이 하나 놓여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물건은 그녀가 매우 좋아했던 것이었으므로 며칠 동안은 먼지도 털고 좀 뭇하긴 하지만 키스도 하긴 했다. 하지만 나중에 별 소용이 닿지 않는 물건임을 알아차렸고 싫증이 났으므로 그 물건을 다락 잠동사니 속에 처넣어 버렸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 그 방을 떠나기로 작정을 했다.

- 최인호, 「타인의 방」 -

24.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현학적 표현을 사용하여 ‘그’의 행위에 대한 서술자의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 ② ‘그’의 내면과 행동을 서술의 초점으로 삼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 ③ 꿈과 현실이 혼재하는 공간적 배경을 통해 ‘그’가 꿈꾸는 이상향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④ 서로 다른 장소에서 동시에 일어난 ‘그’의 경험과 ‘그녀’의 경험을 삽화처럼 나열하고 있다.
- ⑤ 서술자의 관찰 대상을 ‘그’에서 ‘그녀’로 바꾸어 두 인물 간의 갈등을 다각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제 1 교시

국어 영역(화법과 작문)

홀수형

[35~37] 다음은 강연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세요. 야생조류보호협회의 ○○○입니다.
 여러분, 혹시 건다가 유리문에 부딪친 적 있나요? (대답을 듣고) 네, 몇몇 학생들이 경험했군요. 꽤 아팠죠? 그런데 사람보다 훨씬 빠른 야생 조류가 유리창에 부딪치면 어떻게 될까요? □□연구소에서 발간한 안내서에 따르면 유리창 충돌이 야생 조류가 사고로 죽는 원인 중 2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야생 조류는 왜 유리창에 잘 부딪치는 걸까요? (㉠자료 제시) 보시는 것처럼 사람은 양쪽 눈의 시야가 겹치는 범위가 넓어서 전방에 있는 사물을 잘 인식하지만, 대부분의 야생 조류는 눈이 머리 측면에 있어서 양쪽 눈의 시야가 겹치는 범위가 좁습니다. 이 때문에 전방 인지 능력이 떨어지므로 유리창을 인식하지 못해서 부딪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렇다면, 야생 조류가 유리창에 부딪치지 않도록 도움 방법이 없을까요? □□연구소의 안내서에는 그물망 설치나 줄 늘어뜨리기 등의 방법이 소개돼 있습니다. 그중 자외선 반사 테이프를 붙이는 것은 건물의 미관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람은 자외선을 볼 수 없다고 과학 시간에 배웠죠? (대답을 듣고) 다들 잘 알고 있군요. (㉡자료 제시)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야생 조류는 사람과 달리 우리가 보는 색뿐만 아니라 자외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한 것이 바로 자외선 반사 테이프입니다. 이 테이프를 유리창에 붙이면 야생 조류가 테이프에서 반사된 자외선을 보고 그곳에 장애물이 있다고 인식할 수 있지요. 그러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테이프 부착 전후를 비교한 결과, (㉢자료 제시) 보시는 것처럼 부착 후 야생 조류의 유리창 충돌이 크게 줄었습니다.
 야생 조류의 유리창 충돌 사고는 우리 주변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야생 조류의 유리창 충돌을 줄이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제가 안내한 방법 중에는 여러분이 집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있으니 가능한 방법을 찾아 실천해 보세요. 이상으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35. 위 강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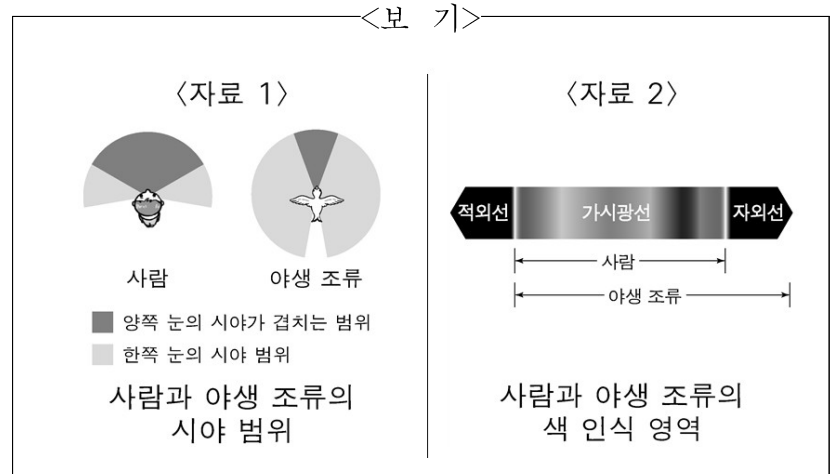
- ① 강연에서 제시된 용어를 정의하여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② 청중의 응답을 이끌어 내고 반응을 확인하여 청중과 상호 작용 하고 있다.
- ③ 청중의 배경지식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여 청중의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
- ④ 강연의 앞부분에서 강연 내용의 순서를 제시하여 청중들이 내용을 예측하며 듣게 하고 있다.
- ⑤ 강연 내용의 이해 정도를 확인하는 질문을 하면서 강연을 마무리하여 청중에게 강연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36. 다음은 학생이 강연을 들으며 떠올린 생각들이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의 듣기 활동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며칠 전 우리 집 유리창에도 비둘기가 부딪쳐서 놀랐어.
- 비둘기도 야생 조류에 해당할까?
- 자외선 반사 테이프는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아. 우리 집에도 부착하면 새가 부딪치지 않겠지.
- 야생 조류가 부딪치지 않게 유리창에 그물망을 설치하는 것은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 ① 강연 내용과 관련된 자신의 과거 경험을 떠올리며 들었다.
- ② 강연자가 설득의 근거로 제시한 내용에 의문을 제기하며 들었다.
- ③ 강연을 통해 알게 된 정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들었다.
- ④ 강연자가 제시한 방법이 실제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들었다.
- ⑤ 강연자의 제안에 따라 자신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며 들었다.

37. <보기>는 강연에서 강연자가 제시한 자료이다. 강연자의 자료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자료 1>은 야생 조류의 유리창 충돌로 인한 피해 현황을 보여 주기 위해 ㉠에서 활용하였다.
- ② <자료 1>은 사람과 야생 조류의 시야 범위가 다를 것을 설명하기 위해 ㉡에서 활용하였다.
- ③ <자료 1>은 자외선 반사 테이프의 부착 효과를 보여 주기 위해 ㉢에서 활용하였다.
- ④ <자료 2>는 야생 조류가 유리창에 충돌하는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 ㉠에서 활용하였다.
- ⑤ <자료 2>는 야생 조류가 자외선 반사 테이프를 장애물로 인식할 수 있음을 설명하기 위해 ㉡에서 활용하였다.

[38~42] (가)는 학생회 회의의 일부이고, (나)는 (가)를 바탕으로 작성한 안내문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학생회장 : ㉠지난 회의에서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랜선 동아리 발표회를 개최하기로 했는데요, 오늘은 그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동아리에서 준비하게 될 발표 자료에는 어떤 내용을 담는 것이 좋을까요?

위원 2 : 저는 동아리 활동을 통해 얻어진 성과나 결과물을 영상이나 사진 자료로 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3 : ㉡물론 동아리 활동을 통해 얻어진 성과나 결과물도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꼭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19로 지금까지 동아리 활동을 제대로 하기 어려웠고, 앞으로도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울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동아리와 관련된 내용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1 : 동의합니다. 랜선 동아리 발표회 자체가 코로나 19의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는 취지인 만큼 동아리원들이 성과나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모임을 갖거나 공동 작업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촬영해 둔 활동 영상이나 사진을 동아리 특성에 맞게 편집해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위원 2 : 여러분 의견을 듣고 보니 제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말씀처럼 동아리와 관련된 자유로운 내용을 발표 자료로 제작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학생회장 : 그럼 각 동아리에서 발표할 자료의 내용은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정리가 되었고요, 영상이나 사진 자료의 분량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위원 3 : 학교 누리집의 탑재 용량이나 동시 접속이 가능한 학생 수 등을 고려할 때, 5분 이내의 짧은 발표 자료였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1 : 맞습니다. ㉣지난달 진로 상담부 행사 때, 학교 누리집에 있는 10분짜리 영상을 시청하다가 행사 진행이 매우 어려웠던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영상이나 사진 자료의 길이가 길면 해당 파일의 용량이 커져 학생들이 발표 자료를 다운로드하거나 실시간 시청을 하는 데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원 2 :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다만 발표 자료를 5분 이내로 만들더라도 지나치게 고화질로 제작해 파일 용량이 커지지 않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회장 : 좋습니다. 그러면 동아리별로 5분 이내의 영상이나 사진 자료를 만들도록 하고, ㉤화질은 실시간 영상 시청에 무리가 없는 SD급으로 제작하는 것이 어떨까요?

[A]

[B]

위원 1, 2, 3 : 예, 좋습니다.

(나)

2021학년도 ○○고 랜선 동아리 발표회 참가 신청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 고등학교 학생회입니다. 코로나 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학생 안전을 도모하고 코로나 19 극복에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올해는 부득이 동아리 발표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예전과 같은 동아리 발표회가 될 수는 없지만, 이번 행사를 통해 학생들의 재능과 성과를 공유하며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랜선 동아리 발표회 참가 신청과 관련 내용을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랜선 동아리 발표회 행사 진행 및 관람 방법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행사 1개월 전에 학교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아 래-

1. 랜선 동아리 발표회 개요

가. 일시: 2021년 10월 28일(13:00~16:00)

나. 장소: 우리 학교 누리집

2. 동아리 발표 신청 방법

가. 신청 기한: 2021년 8월 10일까지

나. 신청 방법: 학교 누리집 접속 > 동아리 발표회 신청 메뉴 이용

3. 동아리 발표 자료 제작 안내

가. 형태 및 분량: 영상 또는 사진 자료(5분 이내, SD급, 500MB 이하)

나. 탑재 방법: 학교 누리집 > 동아리 발표회

다. 내용: 동아리와 관련한 어떠한 내용도 탑재 가능 (동아리 활동, 홍보, 공동 작업 결과 등)

라. 유의 사항: 대면 모임, 공동 작업을 지양하고, 원격 회의나 온라인 공동 작업을 권장함.

마. 탑재 기한: 2021년 10월 25일까지

38.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지난 회의 결과를 환기하며 회의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을 밝히고 있는 발화이다.
- ② ㉡: 다른 사람의 견해를 일부 인정하며 완곡하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발화이다.
- ③ ㉢: 의문의 형식을 활용하여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고 있는 발화이다.
- ④ ㉣: 회의에 참여한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경험적 사례를 환기하고 있는 발화이다.
- ⑤ ㉤: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절충해 새로운 방안을 제안하는 발화이다.

제 1 교시

국어 영역(언어와 매체)

홀수형

[35~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구개음화는 원래 구개음*이 아닌 자음이 어떤 음운의 영향을 받아 구개음이 되는 현상을 포괄적으로 지칭한다. 하지만 현대 국어에서 구개음화는 끝소리가 ‘ㄷ, ㅌ’인 형태소가 모음 ‘ㅣ’나 반모음 ‘ㅍ, ㅑ’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 치음 ‘ㄷ, ㅌ’이 구개음 ‘ㅈ, ㅊ’으로 소리 나는 현상으로 정의한다. 가까운 예시로 ‘미단이’를 [미다지]로 발음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는 모음 ‘ㅣ’ 및 반모음 ‘ㅍ, ㅑ’가 구개음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국어사에서 구개음화는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에 남부에서부터 시작하여 북상한 것으로 추정한다. 1824년, 실학자 유희는 『언문지』에 당시 사람들이 ‘다더’나 ‘타터’를 ‘자져’나 ‘차쳐’와 동일하게 발음하고 평안도 지방 사람들만이 ‘턴(天)과 ‘천(千), ‘디(地)와 ‘지(至)를 구분하여 발음한다고 기술하였다. 구개음화가 진척되는 과정에서 발음상 ‘디, 다, 더, 도, 듀’와 ‘티, 타, 터, 토, 튜’ 등과 같은 결합은 나타나지 않다가, 구개음화가 진척된 이후에 ‘디, 티’가 ‘디, 티’로 변하면서 이 형태가 다시 나타난다. ‘디, 티’는 구개음화의 영향에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이다.

근대 국어에서 나타난 ‘ㄷ, ㅌ’의 구개음화는 ‘ㄷ, ㅌ’이 구개음으로 변환 것을 전제로 한다. 이전까지의 ‘ㄷ, ㅌ’은 치음*이었다. 구개음화가 진척되던 처음에는 ‘ㄷ, ㅌ’이 구개음인 모음 ‘ㅣ’나 반모음 ‘ㅍ, ㅑ’ 앞에서만 구개음으로 발음되다가 점차 후행하는 모음에 관계없이 ‘ㄷ, ㅌ’이 모두 구개음으로 발음되었다. ‘ㄷ, ㅌ’이 구개음으로 변환 이후, 그 이전까지 존재했던 ‘자, 저, 조, 주’와 ‘쟈, 저, 죠, 주’의 음성적 차이는 사라졌고, 19세기 문헌에서는 ‘자’와 ‘쟈’, ‘저’와 ‘저’ 등이 구분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나타난다.

근대 국어에서 구개음화는 ‘ㄱ’과 ‘ㅇ’이 합쳐진 ‘ㄱ-ㅇ’에서와 같이 형태소 경계에서 일어나기도 했지만, ‘티다’가 ‘치다’로 변환 것과 같이 하나의 형태소 내부에서도 일반적으로 일어났던 현상이다. 하지만 이러한 단일 형태소 내부에서의 구개음화는 공식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려우며, 현재에 구개음화는 주로 형태소 경계에서만 일어나는 음운 현상으로 다소 축소되어 이해되고 있다.

* 구개음: 입천장소리.
* 치음: 잇몸소리.

35. 윗글을 참고하여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현대 국어의 구개음화는 조음 위치 동화에 해당하는군.
 - ② 근대 국어 이전 시기에 ‘ㄷ, ㅌ’은 구개음이 아니었겠군.
 - ③ 오늘날의 ‘잔디’는 근대 국어 시기에 구개음화를 겪지 않았겠군.
 - ④ 근대 국어 시기에 구개음화는 주로 형태소 경계에서만 일어났겠군.
 - ⑤ 근대 국어 시기에 같은 표기에 대해서 지역에 따라 발음의 차이가 있었겠군.

36.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 더(저) 네 아드룬 어덜어늘(어질거늘) 내 아드리 비록
ㅁ디라도 (ㅁ이라도)

㉡ 그더 살고 너가 죽으면 저 즈식을 키울 거슬 너가 살고
그더 죽어 저(저) 자식 엇지(어찌) 키잔 말고

- ① ㉠과 ㉡ 두 자료의 시기적 간격 사이에 구개음화 현상이 표기에 반영되기 시작하였겠군.
- ② ㉠의 ‘더’와 ㉡의 ‘저’는 의미는 같으나 형태에 차이가 있고, ㉠이 ㉡보다 앞선 시기의 자료이겠군.
- ③ ㉠의 ‘어덜’과 ‘ㅁ디’는 후행하는 모음의 영향으로 인해 ‘ㄷ’을 구개음으로 발음한 결과이겠군.
- ④ ㉡의 ‘저’와 ‘저’는 형태상 차이가 있으나 의미와 발음상 차이는 없겠군.
- ⑤ ㉡의 ‘엇지’에서 ‘ㅈ’은 현대 국어에서의 ‘ㅈ’과 유사하게 발음되었겠군.

37.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관형사와 부사 중에서 특히 ㉠지시 관형사, ㉡지시 부사는 ‘지시’라는 의미 특성상 동일한 형태의 또 다른 품사들인 ㉢지시 대명사와 구분이 모호할 때가 있다. 마찬가지로 ㉣수 관형사와 ㉤수사도 그러하다. 대명사와 수사는 체언이므로 조사와의 결합이 가능한 반면, 관형사와 부사는 체언과 용언을 수식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조사와 결합하지 않는다는 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이는 우리가 생각하던 바입니다.
㉡ 전 나무는 모양새가 아주 좋군요.
㉢ 무슨 말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다.
㉣ 심리학을 배우고 있는 학생 열이 모였어요.
㉤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한 사람은 모두 아홉 명이다.

- ① ㉠의 ‘이’는 조사와 결합하고 있으며, 뒤에 오는 체언을 수식하고 있으므로 ㉡이다.
- ② ㉡의 ‘저’는 조사와 결합하지 않으며, 뒤에 오는 체언을 수식하고 있으므로 ㉠이다.
- ③ ㉢의 ‘그렇게’는 조사와 결합하고 있으며, 뒤에 오는 용언을 수식하지 않으므로 ㉢이다.
- ④ ㉣의 ‘열’은 조사와 결합하고 있으며, 뒤에 오는 용언을 수식하고 있으므로 ㉣이다.
- ⑤ ㉤의 ‘아홉’은 조사와 결합하지 않으며, 뒤에 오는 체언을 수식하지 않으므로 ㉤이다.

40.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나)와 달리, 정보의 생산자와 수용자가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의사소통할 수 있다.
- ② (가)는 (나)와 달리, 생산자가 수용자의 반응에 따라 자신이 생산한 정보를 즉각적으로 수정할 수 있다.
- ③ (나)는 (가)와 달리, 수용자가 여러 배열 기준을 적용하여 정보를 다양하게 확인할 수 있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대량의 정보를 동시에 전달할 수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음성, 문자, 이미지, 영상 등을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41.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여러 이용자가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인터넷상의 공간을 사이버 공간이라고 한다. 사이버 공간은 행위를 한 사람이 드러나지 않는 익명성과 정보가 다양한 경로로 전파될 수 있는 확장성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의사소통의 장이 된다. 그러나 사이버 공간의 익명성과 확장성은 사이버 폭력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한편, 사이버 공간에서 제시되는 정보는 대중의 사고 체계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사이버 공간상의 대중 매체가 주목하는 이슈는 대중의 관심을 유도하는데, 이 이슈에 대한 대중매체의 입장이나 태도는 상이할 수 있다. 그래서 사이버 공간의 정보 수용자들은 유통되고 있는 정보가 비윤리적이거나 편파적인 것은 아닌지에 대해 검토해야 하고, 정보를 공유할 때는 사이버 공간의 파급력에 대해 인지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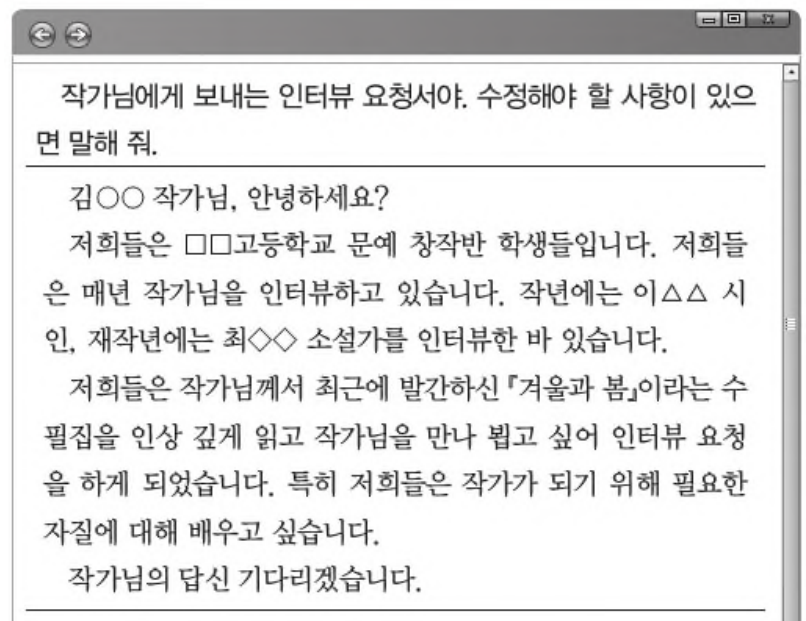
- ① (가)에서 김○○ 씨의 사례를 제시한 것은 사이버 공간의 익명성과 확장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② (가)에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정보 유통의 문제점에 대해 언급한 것은 정보를 재생산할 때 사이버 공간의 정보 파급력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③ (가)와 (나)의 ㉠~㉢에서 사이버 폭력에 대해 정보를 제시한 것은 정보 수용자에게 사이버 폭력에 관한 문제의식을 불러일으킨다고 할 수 있겠군.
- ④ (가)와 (나)의 ㉡에서 사이버 폭력의 해결 방법에 대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것은 동일한 이슈에 대해 매체가 취하는 입장이나 태도가 상이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⑤ (나)의 ㉠~㉢에서 사이버 폭력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피해자 보호 방안에 대해 강조한 것은 정보 수용자들에게 사태 파악에 대한 편파적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군.

42. (가)의 언어적 특성을 고려할 때,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 사동 표현을 통해 주체의 행동을 강조하였다.
- ② ㉡: 접속 부사를 통해 구체적 사례를 일반화하였다.
- ③ ㉢: 부정 어휘를 통해 주체의 의지 부족 문제를 드러내었다.
- ④ ㉣: 인용 표현을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하였다.
- ⑤ ㉤: 관용 표현을 통해 문제 원인 분석의 필요성을 드러내었다.

[43~45] (가)는 '수지'가 온라인 카페에 게시한 글이고, (나)는 '수지'와 친구들이 휴대 전화 메신저로 나눈 대화이다.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철민: 고생 많았어. 수지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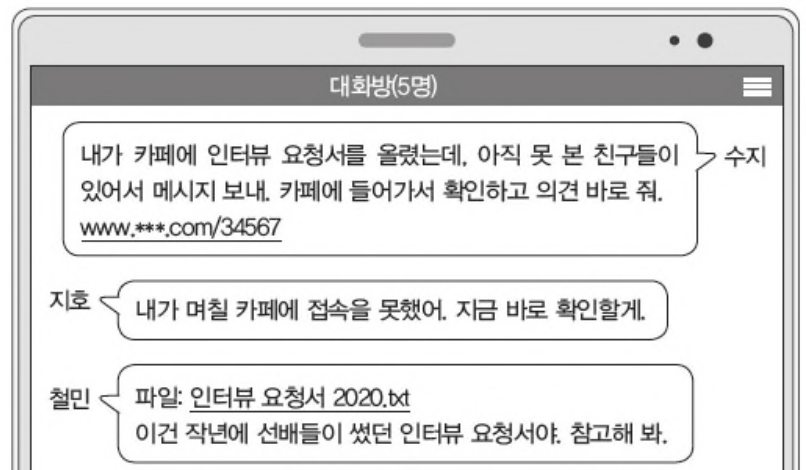
수지: 철민아, 인터뷰 요청서는 어떤 매체를 통해 보내 드리는 게 좋을까?

↳ 철민: 이메일은 수신 확인도 되고 메시지를 주고받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짧으니까 이메일을 이용하자. ㉠

현자: 수지야, 친구들이 카페에는 자주 접속하지 않지만 휴대 전화 메신저는 자주 이용하잖아. 휴대 전화 메신저로 대화하면서 의견을 바로바로 나누는 게 어때? ㉡

↳ 수지: 그래, 그러자.

(나)



정답 및 해설

• 3회 •

정답

1	⑤	2	⑤	3	①	4	③	5	②
6	③	7	③	8	⑤	9	①	10	③
11	③	12	③	13	⑤	14	②	15	④
16	④	17	②	18	②	19	④	20	①
21	③	22	②	23	①	24	②	25	⑤
26	④	27	⑤	28	①	29	④	30	①
31	①	32	①	33	②	34	⑤	35	

해설

[01~03] (독서 이론) 「자유로운 책 읽기」

1. [출제의도] 독서에 대한 가치관 추론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2문단과 4문단의 내용을 보면, 글쓴이는 특정의 형식이나 독서법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절실하게 읽는 독서법을 선호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4문단에서 글쓴이는 군대 시절의 일화를 소개하면서 천천히 음미하면서 읽는 지독법을 언급하고 있다.
- ② 이 글에서 글쓴이는 정독법보다는 비체계적인 독서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③ 2문단을 보면, '책을 제대로 읽는다는 것은 정말 사랑하는 연인을 대하는 것처럼, 다가서며 의혹을 두고~'라는 구절이 있다. 이를 통해 책 속에 나타난 저자의 권위를 존중하기보다는 끊임없는 의문제기를 통한 독서법을 더욱 옹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글쓴이는 이 글에서 책에 대한 비체계적인 독서 방식을 옹호하고 있으며, 책이란 삶의 또 하나의 작은 경험에 불과하므로 정독하는 모범적 독서는 선호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2. [출제의도] 독서 방법의 파악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글쓴이는 모범적 독서를 다독, 정독, 밑줄을 치거나 메모를 하며 읽기 등으로 보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a, c - 모범적 독서의 내용이 아니라, 글쓴이가 이 글에서 이야기 하고 있는 자신의 자유로운 독서 방법에 해당한다.

3. [출제의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① 1문단에서 글쓴이는 책이 삶을 뛰어넘게도 하며 참된 삶을 열어 주기도 하고 현실을 바로 보게 만드는 것도 진실이지만, 그렇다고 모든 책이 그럴 리가 없으며, 책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 될 리

도 없다고 하였다. 또 2문단에서 책이란 잘해 보았자 현실을 바라보는 눈을 길러 주며 세계를 그럴듯하게 베껴 줄 뿐이라고 했으므로 책 읽기를 통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고자 한다는 것은 글쓴이의 태도와 거리가 먼 것임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3문단의 아무 책의 아무 곳을 펼쳐 보다가 아무 때 어디서나 덮고 싶은 대로 덮는 것과 관련 있는 내용이다.
- ③ 4문단의 때로는 정확한 이해보다 절실한 감정이 더욱 아름다운 지혜가 될 수도 있다는 것과 관련 있는 내용이다.
- ④ 2문단의 머리 아픈 모범적 독서 교훈을 내팽개치고 편하게, 책 읽는 괴로움으로부터 자유로운 태도에 대한 옹호론이 생겨났다는 것과 관련 있는 내용이다.
- ⑤ 4문단의 일부러 책을 찬찬히, 마치 귀한 사탕 과자를 닮는 것이 아까워 아주 조금씩 빨듯이 느장부리며 읽어 간다는 것과 관련 있는 내용이다.

[04~09] (주제통합) 「쌍극자를 이용한 압전 효과」

<연계 : 수능특강 실전학습 1회 - 자연물에 담긴 과학의 원리>

4. [출제의도] 세부 내용 파악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압전 모터는 압전체에 교류 전기를 흘려 줄때 압전체가 계속 떠는 진동을 이용해 압전체 위에 놓인 물체가 원형으로 회전하거나 직선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역할을 하며, 반응 속도가 빠르고 기어 없이 진동으로 움직인다. 물체를 회전 운동이나 직선 운동을 하게 만드는 장치라고 할 수 있으나 기어를 이용하지는 않는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전체적으로 중성을 띠지만 각 전하의 위치가 흩어져 있는 원자나 분자에서 나타날 수 있어 물질의 전기적인 성질을 결정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 ② '물 분자 안에서 음전하를 가진 전자들은 수소쪽보다는 산소 쪽에 더 가깝게 있으려는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물 분자의 산소 쪽과 수소 쪽이 서로 반대의 전기적 성질을 띠며 쌍극자가 된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 ④ '일반 모터와 달리 미끄러지지 않고 나노미터규모로 정밀하게 움직일 수 있어 더욱 상용화될 전망이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 ⑤ '석영, 전기석, 세라믹 같은 압전체에서는 특정방향으로 한쪽이 양극성을, 반대쪽이 음극성을 띠는 분극 현상이 일어난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5. [출제의도] 생략된 내용 추론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② 전기 신호를 이용해 점자의 블록한 부분이 번갈아 들출되게 만든 장치가 압전 효과와 관련 있다고 볼 때, 이 장치는 컴퓨터 자판의 키 하나 크기의 압전 모터에 전기를 흘려 주어 진동을 발생시키는 것과 관련된다 할 수 있다. 전기를 흘려 주어진동을 발생하게 하는 것은 2차 압전 효과와 관련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1차 압전 효과는 외력을 주어 전기를 발생시키는 것과 관련되므로 이 장치에 활용되지 않았다.
- ③, ④, ⑤ 2차 압전 효과는 활용되었지만 1차 압전효과는 활용되지 않았다.

[18~23] (갈래복합) (가) 백석, 「수라」 / (나) 문정희, 「곡비」 / (다) 김창협, 「산민」
 <연계 : 수능완성 실전 모의고사 4회 - 곡비>
 <연계 : 수능특강 적용학습 고전시가 11강 - 산민>

18. [출제의도] 작품 간의 공통점·차이점 파악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② (가)~(다)는 모두 시적 화자가 관찰자의 입장에서 대상을 관찰하면서 느낀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가)에서는 시적 화자가 '거미 가족'을 관찰하고 있으며, (나)에서는 시적 화자가 '옥례 엄마'를 관찰하고 있고, (다)에서는 관리들의 가림주구를 피해 산에 들어가 사는 가족의 힘겨운 삶을 화자가 관찰자의 입장에서 전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세 편의 시 모두 시상의 반전은 나타나지 않았다.
- ③ (가)~(다) 모두 자연물이 주는 깨달음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의 경우도 단지 거미 가족에 대한 생각을 했다는 것이지 이를 통해 어떤 깨달음에 도달한 것은 아니다.
- ④ 두 대상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는 작품은(다) 정도로, '벼슬아치'와 '산에 사는 사람들'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 ⑤ (나)와 (다)에는 화자 자신에 대한 성찰은 나타나지 않는다. 하지만 (가)의 화자는 자신이 한 행동을 돌아보고 반성하기에 성찰은 드러난다. 물론 바람직한 삶의 방향을 모색하는 모습은 드러나지 않는다.

19. [출제의도] 시상 전개 방식의 이해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A], [B], [C] 모두 '방 안'이라고 하는 같은 공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시상이 전개되면서 공간적 배경이 축소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B]에는 '서러워한다'가 사용되었고, [C]에서는 '가슴이 메이는 듯하다', '서럽게 한다', '슬퍼한다'가 사용되었다.
- ② [C]에서는 '어디서 좁쌀알만한 알에서 가제 깨인 듯한 발이 채 서지도 못한 무척 작은 새끼 거미가 이번엔 큰 거미 없어진 곳으로 와서 아물거린다.'와 같이 새끼 거미에 대한 묘사가 세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 ③ 이 작품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 전개를 보여 주고 있다.
- ⑤ [B]와 [C]에서는 화자가 거미 가족에 대한 연민 때문에 한 행동이지만, [A]에서는 무의식적으로 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20. [출제의도]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① '이 세상 가장 슬픈 사람들의 울음 / 천지가 진동하게 대신 울어주고'는 옥례 엄마가 죽은 이의 영혼을 위로하고, 슬퍼하는 가족들을 대신하여 곡을 하는 상황을 표현한 것이다. 하지만 곡비인 옥례 엄마가 자신의 억울한 처지를 떠올리며 과장된 슬픔을 보인다는 내용은 이 시에서 확인할 수 없으며 시의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아 인정하기 어렵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보기>에서 '그 죽음이 비정상적이거나 억울한 경우 또는 그 한을 제대로 위로받지 못한 경우에 그 영혼은 ~ 사람을 해하는 원기가 된다고 보았다.'고 했으므로, '이승에는 눈 못 감고 떠도는 죽음'은 한 때문에 이승과 저승의 중간 세계를 떠도는 영혼들이라고 볼 수 있다.
- ③ <보기>에서 '곡비는 이렇게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을 위로'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으므로, '저승으로 갈 사람 편히 떠나고'는 곡비의 울음을 통해 죽은 영혼이 한을 위로받을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 ④ 죽은 영혼을 위로하는 곡비의 역할을 생각할 때, '그네의 울음은 언제 그칠 것인가'는 한스러운 삶이 이어지는 이 세상에서 '곡비'의

역할은 그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 ⑤ <보기>에서 언급한 곡비의 역할을 생각할 때, '시인'을 아픈 사람들을 대신해 울어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는 것은 적절하다.

21. [출제의도] 다른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다)에서 '남편'은 아침에 따비를 메고 산에 올라 산밭을 일구느라 저물도록 돌아오지 못한다고 하였으므로 '벼슬아치를 피해 떠났다는 것'은 (다)의 내용을 잘못 파악한 것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② '평지에 살면 더없이 좋으련만 / 가고 싶어도 벼슬아치 두렵다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④ '숲 속에는 사나운 호랑이 많아 / 나물도 마음대로 못 뜯는다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⑤ '사방을 둘러봐도 이웃은 없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22. [출제의도] 어휘의 함축적 의미 파악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② ㉠과 ㉡은 모두 외적인 상황으로 인해 생긴 정서라고 할 수 있다. ㉠은 '나'에 의해 가족과 헤어지게 된 '새끼 거미'로 인한 슬픔이며, ㉡은 권력의 횡포에 고통받는 민중의 아픔으로 인한 슬픔이기 때문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과 ㉡은 모두 대상에 대한 화자의 감정이므로,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③ ㉠과 ㉡에서 한탄과 비애의 정서를 느낄 수 있지만, 무기력한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은 찾기 어렵다.
- ④ 현실 상황에 대한 비판 의식은 ㉠보다 오히려 ㉡에 더 많이 담겨 있다.
- ⑤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그리움은 ㉠과 ㉡에 모두 담겨 있지 않다.

23. [출제의도] 시어 및 시구의 함축적 의미 이해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① ㉠은 화자가 거미를 불쌍하게 여기고 있는 마음을 행동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감정 이입의 방법이 사용되지는 않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 '별똥 주워 먹고살았다'라고 하였으므로 죽은 이들을 위한 곡이 생계의 수단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 옥례와 옥례 엄마를 모두 '영경귀'에 비유함으로써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하고 있다.
- ④ ㉠: 4연과 5연을 '~하리'로 종결시킴으로써 옥례에 대한 화자의 바람을 드러내고 있다.
- ⑤ ㉡: 민중의 비참한 상황과 정서가 설의적인 표현을 통해 더욱 강조되고 있다.

[24~27] (현대소설) 최인호, 「타인의 방」

<연계 : 수능완성 실전 모의고사 1회 - 타인의 방>

24. [출제의도]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② 이 작품은 현대인이 도시의 일상생활에서 겪는 인간 소외를 상징적으로 묘사한 심리 소설이다. 작품에서 서술의 초점이 되는 인물은 '그'인데, 일련의 사건에 대한 '그'의 내면과 행동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술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그'의 행위에 대한 서술자의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현학적 표현이 사용된 부분도 찾을 수 없

- ⑤ 옥영이 양씨 집안과의 혼인을 거부하고 최척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으로 끝내 사랑을 성취하게 되는 데서 전란으로 인한 이별을 극복하고 가족 간의 사랑을 지켜 나가는 이 글의 주제 의식을 보여 주게 된다.

30. [출제의도] 서술 방식의 특징 파악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① [A]에서는 옥영이 최척과 혼인한 후 몸소 열심히 일하고 지성으로 시부모와 남편을 섬기고 있다는 점이 언급 되어 있다. 그런 다음 옥영이 사람들을 대할 때, 따뜻한 마음과 올 바른 예를 갖추었다고 서술하는 데서 요약적 제시를 통해 인물의 행적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1. [출제의도] 한자 성어를 통한 이해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① ㉠은 옥영이 최척을 기다리며 수심 속에서 밥을 먹지 못하고 잠도 못 자며 지냈다는 것으로 '몹시 마음을 쓰며 애를 태움.'을 뜻하는 '노심초사'가 가장 적절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와신상담'은 '불편한 설에 몸을 눕히고 쓸개를 맛본다.'는 뜻으로, '원수를 갚거나 마음먹은 일을 이루기 위하여 온갖 어려움과 괴로움을 참고 견딤.'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 ③ '이심전심'은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뜻이 통함.'을 뜻하는 말이다.
- ④ '풍수지탄'은 '효도를 다하지 못한 채 어버이를 여윈 자식의 슬픔.'을 이르는 말이다.
- ⑤ '혼비백산'은 '혼백이 어지러이 흩어진다.'는 뜻으로, '몹시 놀라 넋을 잃음.'을 이르는 말이다.

[32~34] (고전시가) 이항, 「도산십이곡」
<연계 : 수능특강 실전학습 2회 - 도산십이곡>

32. [출제의도] 표현상 특징 파악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① 이 글에서는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이 글은 4음보의 율격을 띠고 있다. 4음보 율격으로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③ '어떠하리', '무엇 하리', '말씀할까', '하는고'와 같은 설의적 표현이 나타나 있다. 설의적 표현으로 각각 자연과 함께하는 삶을 긍정함, 천하의 허다한 영재를 속여서는 안 됨, 멀리 마음을 두지 말아야 함 등을 강조하고 있다.
- ④ '~ 어떠하리', '~ 하니 진실로 ~', '~하니 ~ 듣(보)기 좋아' 등과 같이 유사한 통사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각각 자연과 함께하는 삶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 태도를 드러내고, 순풍과 어진 인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드러내며, 자연을 찬미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⑤ 이 글에서는 주로 시각적 이미지가 활용되고 있다. 이미지를 활용하여 도산 주변의 자연 풍경을 구체적으로 그려 내고 있다.

33. [출제의도] 화자의 정서, 태도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② 화자는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천석고향'으로 드러내면서 '연하'를 집으로 삼고, '풍월'을 벗으로 삼아 살아가는 삶을 노래하고 있다. 또한 '유란'과 '백운'을 듣고 보며 좋아하면서 자연에 동화되어 살아가는 삶을 보여 주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화자는 '언지 4'에서 '피미일인'으로 표현된 임금을 향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을 뿐, 임금을 원망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 ③ 화자는 자연에 묻혀 사는 삶에 대해 긍정하면서 자연 속에서 '허물' 없는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 따라서 자신의 삶을 반성하는 태

도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 ④ 이 글에는 '허다 영재'와 '피미일인'이 대상으로 등장하지만, 화자가 그들을 부정적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으며, 그들에 대한 대결 의식을 드러내고 있지도 않다.
- ⑤ '언지 5'의 '교교백구'를 화자 자신으로 해석할 경우, 현실 정치를 떠나온 스스로에 대한 내면의 갈등이 나타났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갈등을 극복하려는 의지는 확인할 수 없다.

34.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교교백구'는 이 작품에서는 현자, 즉 '어진 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교교백구는 멀리 마음 하는고'는 현자들이 벼슬도 마다하고 정치 현실과 동떨어져 자연에 물러나려는 선비들과 그 상황을 근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초야우생'은 자연에 묻혀 사는 어리석은 선비라는 의미로, 작품 속에서는 화자 자신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화자의 목소리를 통해 작가가 자기 스스로를 '어리석은 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사직의 명분으로 스스로를 '어리석은 이'라고 내세웠던 자기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② 화자는 자연 속에서 살면서 허물이나 없이 살아가는 것을 자신의 바람으로 표출하고 있다. 이는 선비란 성리학적 이치를 깨닫고, 이를 통해 성숙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인식을 바탕으로 작가가 자신의 바람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이 글에서는 순박한 풍속이 죽었다는 말이 거짓이라고 단정하고 있다. '허다 영재를 속여 말씀할까'는 이처럼 거짓된 말로써 인간의 본성이 근본적으로 어질다고 말하는 성리학적 이치를 왜곡하는 이들에 대한 작가의 비판 의식이 담긴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 ④ '피미일인'이란 임금을 가리키는 말이다. 작가는 자신의 사직을 한 사코 만류하는 임금의 뜻을 저버리고 자연으로 돌아왔지만, '피미일인을 더욱 잊지 못하애'를 통해 임금에 대한 변함없는 충정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화법과 작문]

35	②	36	②	37	⑤	38	⑤	39	④
40	⑤	41	③	42	②	43	⑤	44	②
45	③								

35. [출제의도] 말하기 전략 평가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② 2문단에서 강연자가 '부딪친 적 있나요?'라고 물은 후 '(대답을 듣고) 네, 몇몇 학생들이 경험했군요.'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4문단에서 '과학 시간에 배웠죠?'라고 물은 후 '(대답을 듣고) 다들 잘 알고 있군요.'라고 말하고 있다. 이로 보아 강연자가 청중의 응답을 이끌어 내고 있는 모습과 청중의 반응을 확인하는 모습을 찾을 수 있다. 이처럼 청중의 응답을 이끌어 내고 반응을 확인하는 것은 강연자가 청중과 상호 작용하는 것에 해당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강연의 주된 내용은 야생 조류가 유리창에 잘 부딪치는 이유와 그것을 방지하는 방법에 대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용어가 등장하고 있으나 용어를 정의하여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지는 않다.
- ③ 강연자는 자외선에 대한 청중들의 배경지식을 물어보고 난 뒤 '다들 잘 알고 있군요.'라고 하고 있다. 배경지식을 환기하면서 청중과 상호작용을 하고 있지만 청중의 배경지식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는 것은 아니다.
- ④ 강연의 앞부분에서 강연 내용의 순서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 ⑤ 강연을 마무리하는 5문단에서 강연자는 청중의 관심을 촉구하고 일상에서의 실천을 당부하고 있을 뿐, 청중에게 강연 내용의 이해 정도를 확인하는 질문은 하고 있지 않다.

있다.

- ② (나)의 ‘아래-2’에 동아리 발표 신청 방법과 관련한 정보를 하위 항목인 ‘가, 나’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나)의 ‘아래-2’에 동아리 발표 신청 기한과 방법에 대한 정보를 안내문의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⑤ (나)의 ‘아래-3-라’에 발표 자료 제작 시 유의 사항을 밝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2. [출제의도] 소개 글쓰기 내용 점검, 조정하기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② (나)는 비록 랜선 동아리 발표회 신청 안내를 위한 글이지만, 이 글을 읽는 많은 독자들은 랜선 동아리 발표회에 대한 의견 수렴에 자신의 견해를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그러므로 안내문에 랜선 동아리 발표회와 관련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이나 절차 등을 간략히 제시해 준다면 더욱 좋은 안내문이 될 것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나)의 내용을 살펴보면, 글의 내용 중 통일성을 해치는 불필요한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 ③ (나)의 앞부분에는 감성적, 상징적 표현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 ④ ‘아래-1’은 랜선 동아리 발표회의 개요이다. 그런데 이 내용이 동아리 발표 신청 방법이나 동아리 발표 자료 제작 안내 뒤에 등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⑤ 랜선 동아리 발표회 신청 방법을 안내하는 글에서 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위한 방법을 추가로 제시하는 것은 글의 통일성을 해치는 조연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43. [출제의도] 글쓰기 계획에 따른 표현하기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역사적 사실의 반영 정도에 따른 사극의 유형’은 글의 초고 어느 부분에서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글의 초고에 반영된 생각이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1문단에서 ‘사극에 대해 학생들 사이에 논란이 일고 있다.’라고 하면서 ‘실제 역사와는 다르지만 재미있었다는 반응’과 ‘수업에서 배운 내용과 너무 달라서 보기에 불편했다는 반응’을 모두 언급하고 있다.
- ② 2문단에서 ‘사극의 본질은 상상력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야기를 통해 구현되는 주제 의식에 있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 ③ 3문단에서 ‘실존 인물에 새로운 성격을 부여’, ‘실재하지 않았던 인물을 등장시켜 극적 긴장감’을 언급하며 ‘이러한 점은 시청자들이 사극에 공감하고 재미를 느끼게 하는 요인’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 ④ 3문단에서 사극이 ‘실제 역사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44. [출제의도] 고쳐쓰기의 적절성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② 글의 초고의 마지막 문단은 ‘실제 역사’의 가치와 ‘사극’의 가치를 동등하게 언급하며 ‘실제 역사와 사극은 저마다의 가치를 지닌다고 서술되어 있다. ‘사극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나의 생각을 밝히’는 글의 목적을 고려할 때 이러한 내용은 글의 논지가 분명하지 않게 서술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고쳐 쓴 마지막 문단’은 ‘실제 역사’의 가치에 대한 언급을 삭제하고 ‘사극’의 가치를 중점적으로 언급하며 ‘사극을 실제 역사 그 자체의 재현이 아닌 허구적 창작물로 인식해야’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에 들어갈 내용은 ㉡가 가장 적절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글의 초고의 마지막 문단이 사극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함께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③ 글의 초고의 마지막 문단이 실제 역사의 장점을 위주로 제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고쳐 쓴 마지막 문단’은 사극이 실제 역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지 않다.
- ④ ‘고쳐 쓴 마지막 문단’은 사극의 본질이 실제 역사를 온전히 수용하는 데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실제 역사 그 자체의 재현이 아닌 허구적 창작물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⑤ 글의 초고의 마지막 문단은 실제 역사 반영이 사극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주장하지는 않는다.

45. [출제의도] 내용 생성의 적절성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A]는 사극이 ‘허구를 통해 가치 있는 의미를 담고 그것이 얼마나 시청자의 공감을 살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역사적 사실과 얼마나 부합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달리 <보기>는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역사적 사실은 유지하고, 역사적 사실들을 연결해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상상력이 발휘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즉 ‘사실로서의 역사’와 ‘상상력의 산물로서의 허구’ 두 요소가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기>의 관점에서 [A]를 비판하는 내용은 ‘사실’과 ‘상상력’의 균형을 언급하고 있는 ③이 가장 적절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사실로서의 역사를 중심으로 사극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역사와 허구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보기>의 관점과 맞지 않다.
- ② 허구를 역사보다 더 가치 있게 바라봐야 한다는 것은 <보기>의 관점과 맞지 않다.
- ④ 사실로서의 역사가 시청자의 공감을 유도하는 요인이라는 것은 허구를 통해 공감을 유도한다는 [A]의 내용과 반대되는 것이지만 그에 대한 근거는 <보기>에 없으며, 허구와 역사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보기>의 관점과도 맞지 않다.
- ⑤ 허구적 내용의 재미보다 역사적 사건의 유사성에 초점을 맞춰 사극을 제작해야 한다는 것은 <보기>의 관점과 맞지 않다.

[언어와 매체]

35	④	36	③	37	②	38	④	39	②
40	③	41	⑤	42	④	43	⑤	44	⑤
45	⑤								

35. [출제의도] 근대 국어의 특징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근대 국어 시기에 구개음화는 ‘티다’가 ‘치다’로 변한 것처럼 하나의 형태소 내부에서도 일어났었다. 구개음화가 주로 형태소 경계에서만 일어난다는 설명은 ‘미닫이’를 [미다지]로 발음하는 것과 같이 현대 국어 시기의 구개음화에 대한 설명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현대 국어의 구개음화는 치음인 ‘ㄷ, ㅌ’이 구개음인 모음 ‘ㅣ’나 반모음 ‘ㅚ, ㅟ’의 영향을 받아 구개음인 ‘ㅈ, ㅊ’으로 바뀌는 것이기에 조음 위치 동화에 해당한다.
- ② 근대 국어에서 나타난 ‘ㄷ, ㅌ’의 구개음화는 그 이전까지 치음이었던 ‘ㅈ, ㅊ’이 구개음으로 변한 것을 전제로 하기에, 근대 국어 이전 시기에 ‘ㅈ, ㅊ’은 구개음이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 ③ 근대 국어 시기에 구개음화가 진척되는 과정에서 ‘되, 띄’는 구개음화의 영향에서 벗어나 있었고, 구개음화가 진척된 이후에 ‘되, 띄’가 ‘디, 티’로 변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잔디’는 근대 국어 시기에 ‘잔되’였음을 추론할 수 있고, 이는 근대 국어 시기의 구개음화와 관련이 없다.
- ⑤ 구개음화가 시작되어 복잡하던 시기에 당시 사람들이 ‘다더’라는 표기를 ‘자져’와 동일하게 발음하였으나, 평안도 지방 사람들은 ‘디’